

보성소리축제, 판소리 명창부 윤세린씨 대통령상 영예

제28회 서편제소리축제 성황...전국 소리꾼·고수 열띤 경연 축하공연·판소리 다섯 바탕 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남도 전통의 깊은 울림을 간직한 소리의 본향 보성에서 열린 제28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가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축제는 제49회 보성다량대축제 기간에 맞춰 보성군문화예술회관과 보성 판소리성지 일원에서 개최됐으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소리꾼과 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올해는 명창부 대상 상금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 대회의 위상

을 한층 높였다. 명창부 대상인 대통령상은 윤세린씨(43)가 수상해 트로피와 함께 상금 5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고수 경연에서는 김성현씨(32)가 명고부 대상을 차지하며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았다. 이번 축제는 경연대회뿐 아니라 보성 판소리성지에서 보성소리의 맥을 이어온 명창들을 기리는 추모제와 김준수·오정해·김산옥 등 국내 대표 국악인의 축하공

연, 판소리 다섯 바탕 체험과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돼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고 성창순 명창의 예술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성창순 명창상'이 올해로 3회째를 맞았으며, 명창부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유족회 후원으로 상금 200만원이 전달됐다. 이상철 보성군수 권한대행은 "판소리의 가치와 전통을 계승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감사하다"며 "서편제보성소리축제가 세계적인 전통예술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영태형 기자 lmth66@gwangnam.co.kr



'제28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명창부 수상자들 (왼쪽에서 네번째명창부 대상 윤세린씨). 사진제공=보성군청

정승일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장 취임...국제학술상 수상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정승일 비뇨의학과 교수(사진)가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장에 취임했다고 6일 밝혔다. 정 교수는 최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제24차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6년 5월부터 2028년 4월까지 2년이다. 그는 오랜 학회 활동과 학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요로생식기감염 분야를 이끌 적임자로서 신뢰를 받아 오고 있다. 정 교수는 근거 기반 진료지침 고도화,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강화, 젊은 연구자 육성, 국제 학술 교류 확대, 감염 예방 교육 및 공공보건 사업 강화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아울러 정 교수는 이번 학회에서 'Nationwide surveillance of antimicrobial resistance for uncomplicated cystitis in 2023' 논문으로 국제학술상(임상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승일 교수는 "국제학술상 수상과 학회장 취임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또한 이번 연구가 항생제 내성 대응과 요로감염 치료지침 마련에 의미 있는 근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기독병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24시간 전문 진료체계 기반 적시 치료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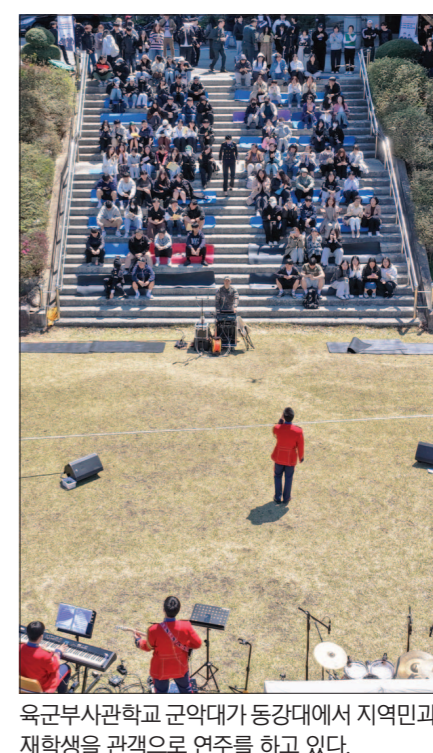
광주기독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심뇌혈관질환자의 전문 치료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광주기독병원은 이번 선정을 통해 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광주기독병원은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0년 연속 1등급, 심혈관중재시술 및 뇌졸중 시술 인증기관, 전문 중환자실과 전문 병상,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전문 간호인력 배치 및 집중 치료를 위한 독립된 치료 환경 등을 갖추고 있다. 이송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또한 뇌와 심장 혈관을 동시에 정밀 촬영할 수 있는 영상 장비와 MRI·CT 24시간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순환기내과·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 전문의로 구성된 전담 진료팀이 협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송하 병원장(사진)은 "이번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 병원의 전문 치료 역량과 협진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동강대 학군단, 봄맞이 군악대 음악회 개최

육군 부사관학교 초청·RNTC 홍보하며 후보생 모집

동강대학교 제305학생군사교육단이 봄맞이 음악회를 개최하며 재학생과 지역민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동강대 학군단은 최근 보건관 앞 운동장에서 육군 부사관학교 군악대를 초청해 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공연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RNTC(Reserve Non-commissioned Officer's Training Corp)를 홍보하고 12·13기 후보생을 모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군 부사관학교 군악대는 뮤지컬을 비롯해 대중가요, 성악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고, 관객 참여형 무대를 통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강건익 학군단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육군 부사관학교 군악대의 초청 음악회를 개최하게 됐다. 학생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은 만큼 앞으로도 멋진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년 7월에 창설된 동강대 학군단 RNTC는 2024년 8기 18명, 지난해 9기 10명에 이어 올해 10기까지 모든 후보생을 100% 임관시켰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육군부사관학교 군악대가 동강대에서 지역민과 재학생을 관객으로 연주를 하고 있다.

전남진흥원, 창업자 도전 의지 고취 밀착형 컨설팅 '눈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설명회...기술·로컬 특별 지원 안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예비 창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최근 국립목포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전남지역 예비 및 초기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역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의 국가적 창업 지원 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정보를 지역 내에 신속히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는 창업을 준비 중인 도민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행사에서는 일반·기술(Tech) 트랙과 로컬(Local) 트랙별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평가 방식 등 전략적인 정보 안내와 함께 지역 밀착형 컨설팅이 진행됐다. 특히 온라인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등 실무적인 가이드를 통해 도내 창업자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즉각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지역 우수 창업자 특강' 색션에서는 선배 창업자들의 생생한 성공 사례 공유가 이어졌다. ㈜큐랩 임하규 대표이사과 비바피 김경희 대표가 강연자로 나서, 실제 창업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 경험과 사업과 전략의 공유하며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이인용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설명회는 전남의 창의적인 인재들이 국가 지원 사업을 발판 삼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소통의 장이었다"며, "앞으



로도 우리 도의 우수한 창업자들이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의 대표 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현재 전국 단위 접수가 진행 중이며, 오는 15일까지 모두의 창업 공식 홈페이지(<https://www.modoo.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진흥원은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도내 유망 창업자들이 기간 내에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용성 기자 yoi1404@gwangnam.co.kr



구례군은 대구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부동산원이 후원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행복 짓고, 사랑 나누고'를 통해 어려운 이웃의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했다. 사진제공=구례군청

구례군, 영·호남연대 조손가구에 보금자리 선물

대구사회복지협의회·한국부동산원 참여

구례군은 대구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부동산원이 후원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행복 짓고, 사랑 나누고'를 통해 어려운 이웃의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을 넘어 나눔을 실천하려는 대구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사가 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구례군의 마음이 맞닿아 '영·호남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군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추천하며 이번 나눔 사업에 힘을 보탤다. 해당 가구는 구례군 '우리동네복지기동대'의 복권기금사업인 '아동·청소년 공부방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곳으로 당시 공부방 책상과 의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방 안의 심각한 외풍과 곰팡이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확인됐다. 대구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를 비롯해 후원을 맡은 한국부동산원 자원봉사자, 시공업체, 구례군 등 총 15명이 참여해 외벽 단열공사, 도배작업, 화장실 타일 보수 등 집중적인 주거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준 대구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부동산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 공사를 통해 대상 가구가 보다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광주소방학교 박성관 소방위, 소방교육 행안부장관상

'멘탈 호흡전술' 강의 우수...국가공무원 대회 출전권 획득

광주소방학교 박성관 소방위가 최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31회 중앙소방교육혁신 경연대회'에서 우수 강의를 선보여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전국 소방학교·소방본부 소속 교수요원들의 교육역량 강화와 교류를 위해 중앙소방학교가 주최했다. 대회에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교수요원 10명이 참가해 강의 콘텐츠와 교육기법 등을 겨뤘다. 광주지역 대표로 참가한 박성관 소방위는 '현장 생존력 향상을 위한 멘탈 호흡전

술'을 강의. 전개 방식과 전달 기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소방위는 이번 수상으로 오는 10월 열리는 국가공무원연계 개발원의 '제 44회 공공HRD(인적자원개발) 경연대회' 참가 기회를 얻었다. 이번 수상은 광주소방학교의 24번째 중앙소방 교육혁신 경연대회 입상으로, 전문소방교육기관으로서 교육 역량을 입증하는 성과이다. 또 공공HRD 경연대회에서는 광주소방학교가 현재까지 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3회, 장관상 6회 등 총 12회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



조현문 광주소방학교장은 "이번 대회에서 우리 소방학교 소속 교수가 우수상을 받아 기쁘다"며 "소속 교수들의 강의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예행 강의 평가를 통해 소방공무원들과 시민에게 인정받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